

**2019년 상반기
기업설명회 Presentation
Script**

BNK 금융그룹

(1p)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BNK금융그룹 CFO 명형국 입니다.

BNK금융그룹의 2019년 상반기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상반기 경영실적에 대해 실적발표 자료의 하이라이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 2019년 상반기 그룹 경영실적 Highlights -그룹 손익현황과 수익성

2019년 2분기 그룹 당기순이익은 1,741억원을 시현하였으며, 상반기 누적 그룹 당기순이익은 3,51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 소폭 감소하였으나, 경영계획 대비로는 557억원, 18.8%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은행의 순이자마진 하락으로 이자이익은 감소했으나, 건전성 개선에 따른 대손비용 축소와 비은행 계열사 실적 개선으로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자부문의익은 중소기업대출 중심의 자산 증가에도 양행의 NIM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했으며, 신용카드 회계처리 변경과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도 이자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수료부문의익은 주요 계열사의 PF수수료 수익 증가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수수료 비용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46억원, 13.2%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부문 이익은 유가증권 관련 수익 증가와 대출채권 매각이익 회계처리 변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584억원, 큰 폭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부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룹 판매관리비는 전년동기대비 9.4% 비교적 큰 폭 증가했으나, 임금인상 소급분 등 4분기 집중되었던 판관비의 연중 분산 영향 216억원을 감안할 경우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해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판관비 분산 영향을 감안한 양행의 판관비 증가율은 부산은행 4.4%, 경남은행 6.8% 수준이며, 연말까지는 그룹 기준 2.6% 이내에서 관리될 예정입니다.

그룹 대손상각비는 1,856억원으로 거액부실 감소와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충당금 환입 효과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86억원 13.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열사별 손익 현황입니다.

부산은행이 이자이익 감소와 지난 해 거액 대출채권매각이익의 기저 효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반면, 경남은행을 포함한 주요 계열사들은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경남은행은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증가와 대손비용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0.8% 순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캐피탈과 저축은행은 대손비용이 안정적인 가운데, PF수수료 수익 증가와 대출 채권 매각 이익 등으로 순이익 증가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투자증권은 경영계획 수준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해 상반기 중국 국저에너지 ABCP 손실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은 순이익 규모는 크지 않으나, 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수수료이익 증가와 고유자산 운용 실적 개선에 힘입어 가파른 이익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은행 계열사의 수익성 제고를 통해 그룹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은행부문 및 비이자수익 강화의 그룹 경영전략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p) 은행 NIM 및 원화대출 성장성

2분기 은행 NIM은 부산은행 2.10%, 경남은행 1.98%로 전분기 대비 각각 6bp, 5bp 하락했습니다. 이 결과 2분기 그룹은 NIM 2.05%로서 전분기 대비 약 5bp 하락했습니다.

양행의 NIM 하락은 우량대출 비중 확대 효과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으로 대출채권수익률이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우량대출 금리 인상 및 신용등급별 금리차 확대 등 NIM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으로 타행과 차이를 보였던 양행의 NIM 하락세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단기간에 NIM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양행의 대출 성장 부문입니다.

2분기 부산은행 원화대출금은 전분기대비 1.4%, 전년말대비 3.1% 증가하며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고른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중점 영업대상인 핵심기업대출은 전년말대비 5.1% 증가했습니다.

반면, 경남은행 원화대출금은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단대출 만기도래에 따른 가계대출 감소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0.8%, 전년말대비 0.1% 감소했습니다.

기업대출은 소매기업 대출 중심으로 전년말대비 2.4% 증가했으나, 가계대출은 집단대출 1.8조원 만기도래 영향으로 전년말대비 4.7% 감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산은행은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되며 연간 4%중반의 대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경남은행은 집단대출 상환이 지속되며 예상보다 낮은 연간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5p)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2분기 그룹 NPL비율은 1.20%로 신규 부실 감소 및 부실채권 매/상각, 한진중공업 203억원 출자전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6bp 하락했습니다. 우측 설명자료와 같이 부산은행 NPL비율은 0.99%로 전분기대비 15bp 큰 폭 하락했으며, 경남은행은 1.14%로 전분기대비 4bp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2017년말 부산은행의 선제적 NPL 분류 여신 713억원과 2018년말 총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양행의 NPL분류 여신

967억원 영향을 제외한 그룹 NPL비율은 0.99% 수준입니다.

2분기 그룹 연체율은 0.81%로 전분기대비 4bp 하락했으며, 부산은행은 0.58%, 경남은행은 0.72%로 전분기대비 각각 7bps, 2bps 하락했습니다.

연말 그룹 NPL비율은 거액여신 부실 감소 추세와 부실채권 매/상각 등을 감안하면, 1% 이내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그룹 대손충당금전입액은 1,856억원으로, 거액부실 감소와 충당금환입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3.4% 감소했으며, Credit Cost도 47bp로 전년동기대비 9bp 하락했습니다.

자산건전성 개선과 충당금환입 등으로 연간 대손비용은 경영계획을 하회하는 4,000억원 내외에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자본적정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그룹 BIS비율은 13.32%로 전년말대비 17bp 상승했으며, 보통주자본비율은 9.66%로 전년말대비 11bp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그룹 내부등급법 추진 현황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2020년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을 목표로 감독원과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룹 단일모형의 사전 운영과 결과 검증 등의 감독원 요구 사항을 감안하면, 당사 기대보다는 일정이 지연되어 2021년 하반기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내년에는 소매 익스포저와 외감기업 등 일부 기업 익스포저에 대한 부분 내부등급법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룹 내부등급법을 적용했을 때 총 80bps의 보통주자본비율 상승을 전망하고 있으며, 2020년 일부 승인 시 35bps, 2021년 잔여분 승인 시 45bps의 개선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하이라이트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렸고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마무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양행의 자산증가에도 불구하고 NIM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이자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량자산 중심의 대출성장에 따른 부실발생 감소와 잠재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충당금 환입 등으로 대손비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은행부문 강화 경영전략 아래 증권을 중심으로 비이자이익이 증가하고 있어 그룹의 수익원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으로 순이자마진의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보다 철저한 NIM 관리와 대손비용 축소, 비은행부문의 수익 확대를 통해 연간 경영계획 6천억원 이상은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영계획 달성과 함께 배당확대를 통한 주주환원에 대해서도 점진적 배당성향 상향 기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